

지역 근대건축자산 보존 성과 발표

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
2019.10.29.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경관과
2019.11.8.



옛 대전여중 강당



옛 국립농수산물품질원



고보조명

출처: 대전시, (2019). 걸어서 만나는 지역의 근대문화와 역사, 4월 24일 보도자료.

광주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전시

광주시는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으로 추진한 '2019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연구결과를 시민에 선보이기 위한 전시를 개최하였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의 주요 근대건축물 3곳의 실측도면과 3D 영상을 만드는 등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번 전시의 목적을 도시재생 랜드마크로서 지역 근대건축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사업 대상인 남구 사동 '최부자집'의 역사·사회·문화·건축학적 연구결과를 VR 영상, 3D 애니메이션, 실측도면, 기록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년도 아카이브 사업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전시는 지난 4월 조성 완료한 근대문화 탐방로가 한국퍼실리티 매니지먼트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에프엠(FM)대상 공모전에서 도시디자인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대전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선적인 공간으로 연결해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대전역, 옛 충남도청, 옛 관사촌, 옛 대전여중 강당, 대전역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 9개를 도보로 만나며 지역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근대건축물의 주요 자재인 붉은색 벽돌로 보도를 조성하였으며 안내사인, 고보조명, 야간경관조명 등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시는 특히 근대건축물 소유자, 근대건축물 관계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완료한 부분도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그 창의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있었던 국토교통부 주관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